



## 주일에배 Sunday Worship

• 오전 10시 30분  
(온라인예배)

• 설교: 서일원 목사

사도신경 ..... 다같이

찬 양 ..... 다같이

1. 왕의 왕 주의 주
2. 생명 주께 있네
3. 다니엘의 기도

기 도 ..... 다같이

- 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 ② 지금 나의 자리에서 부르심 받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소서.
- ③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를 좇지 않게 하소서.
- ④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 ⑤ 신음하는 피조물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소서.
- ⑥ 코로나19로 생존의 기반을 상실한 이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성경봉독 ..... 설교자

마태복음 6장 5-6, 9-10절 (신약 p.7)

설 교 ..... 설교자

“제자의 삶, 친밀함”

광 고 ..... 영 상

주기도문 ..... 다같이



## 수요일예배 Wednesday Worship | 수요일 오후 7:00

- 찬양과 중보기도
- 말씀 나눔



## 목회자 코너 Pastoral column

### 친밀함의 중요성

주님을 믿는 일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면서 그것이 친밀함인 것처럼 가장합니다. 필립 안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회는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에게 돈과 명성으로 보상해 주고, 남들이 누리지 못할 쾌락을 맛볼 기회를 줍니다. 거기에 덧붙이 있습니다. 우리의 명사문화에서 추앙받는 사람들의 간음·마약중독·알코올중독·사치벽·과도한 탐닉 등의 사건을 통해 그 위험을 알 수 있습니다”(필립 안시, 『은혜를 찾아 길을 떠나다』, 138). 우리가 이 덧붙이 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 ‘보상’이라는 명분 하에 덧붙이 더 깊 이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구별하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진정한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뿐입니다. 동일한 의미에서 존 오웬은 우리가 죄에 대해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을 당부합니다. “죄는 끊임없이 수작을 걸고 있다. 육체의 소욕은 언제나 성령을 거스른다(갈 5:17). ... 덕을 세우려고 할 때마다 육신의 소욕은 우리를 악한 쪽으로 끌어당긴다. 선한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거나,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게 심령을 어지럽힌다. 결국 욕심을 따르다 보면 악으로 흐르게 된다”(존 오웬, 『죄 죽이기』, 33). 계속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일이 결국 주님과 친밀함을 견고하게 해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리며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영을 제 마음 속에 보내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제 안에 조금이라도 당신이 들어오시지 못할 은밀하게 닫힌 공간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존 베일리, 『매일기도』, 52). 주님과 멀어지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나만의 은밀한 공간이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주님이신 하나님께조차 그 공간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꼭꼭 걸어 잠그고 ‘나’만 출입하도록 합니다. 그 출입문을 들어가며 온갖 핑계를 대는데 결국 영적으로 피폐한 모습만 남깁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과 친밀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은 ‘그분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느냐?’로 결정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 사회는 재능을 가진 사람들에게 돈과 명성을 약속하지만, 우리의 재능은 주님께 드러져야 할 헌신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친밀함이 없이 재능을 나타낼 때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될 뿐입니다. ‘보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나의 재능이 주님을 위해 드러지기 위해서는 우선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도록 해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드려야 합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을 계속 가져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이어나갈 때 우리는 참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 기도제목 Prayer

### I. 공통기도제목

1.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소서.
2.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3. 사회의 가치를 좇지 말고 주님과 더 교제하게 하소서.
4. 후원하는 현지 목회자 가운데 함께 하소서.
  - ① Bohdan Roháček - Michalovce
  - ② Jose Calvo Aguilar - Žilina
  - ③ Martin Kačur - Spišská Nová Ves
  - ④ Peter Prištiak - Hermanovce nad Topľou
5. 형제교단에 소속된 교회들 가운데 함께 하소서.
  - ✧ Hermanovce nad Topľou 교회 - Peter Prištiak 목사

### II. 주간기도제목

일	주제	기 도 제 목
15일 (주일)	예배	1. 경건함으로 예배에 참석하며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소서. 2.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16일 (월)	환우	1.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아픈 부위가 나음을 얻게 하소서. 2. 오랫동안 지병을 앓아오고 있는 지체들을 위로하소서.
17일 (화)	제직	1. 내년을 주님의 뜻 안에 준비하며 인도하심을 구하게 하소서. 2. 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워나감에 화평을 이루게 하소서.
18일 (수)	선교	1.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이 전해지게 하소서. 2. 일 중심보다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이 되게 하소서.
19일 (목)	가정	1.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이해하는 사랑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과 포근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20일 (금)	지역 사회	1. 지역 한인사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소서. 2. 삶의 현장 속에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21일 (토)	교육부	1.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의 중심을 잡고 방향하지 않게 하소서. 2.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게 하소서.



## 큐티나눔말씀 Word for Quiet Time

날짜(요일)	본문
11월 15일(주일)	대하 12장 1 - 16절
11월 16일(월)	대하 13장 1절 - 14장 1절
11월 17일(화)	대하 14장 2 - 15절
11월 18일(수)	대하 15장 1 - 19절
11월 19일(목)	대하 16장 1 - 14절
11월 20일(금)	대하 17장 1 - 19절
11월 21일(토)	대하 18장 1 - 11절

### ◇ 주일모임안내

모임	안 내
오전예배	오전 10시 30분(온라인 예배)
학생회	
어린이 주일학교	잠정 중단
오후 성경공부	월별 세미나 진행

### ◇ 주중모임안내

모임	안 내
화요 성경공부	온라인 진행
수요기도회	잠정 중단



## 광고 Announcement

- 환영  
오늘 예배에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온라인 예배 안내  
슬로바키아의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슬로바키아 정부 지침에 따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유튜브에서 '질리나한인교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 2020년 제직신청  
2020년 제직으로 봉사하실 분은 신청바랍니다.  
카톡으로 서일원 목사님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한: 오늘까지
- 제직모임  
일시: 11월 15일(주일) 오후 2시  
장소: 교회
- 학생부 성경공부  
주제: "기독교를 알고 싶어요"(8주 과정)  
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30분(12월 18일까지)  
장소: 온라인 모임(zoom)



질리나한인교회  
Korean Church of CB in Zilina

2020년 11월 15일  
(46주)

KÓREJSKÝ ZBOR CIRKVI BRATSKEJ V ŽILINE

NA SIHOTI 4, 010 01 ŽILINA, SLOVENSKO

홈페이지: [www.zilina.kr](http://www.zilina.kr) / 담임목사연락처: 0903 415 821

《교회 표어》 감사하고 또 감사하자!

- 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합니다.
- ②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합니다.
- ③ 이웃과 감사를 나눕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시편 100편 4절)

## ✿ 섬기는 사람들

- ▶ 담임목사: 서일원 ▶ 제직: 김영수, 김은혜, 박시몬, 박영환, 서제원 ▶ 찬양팀: 서제원, 정세영
- ▶ 성찬준비: 안온선, 이진일